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 농수산물 수출

# Zoom In 97호

## I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 II 껌잎 수경재배' 표준 재배법 나온다



## III UN 5월 12일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7호 2022. 5. 2(월)

‘22.4.30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41.0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물
  <b>1.4%</b> 495.3백만불	  <b>10.8%</b> 2,486.3백만불	  <b>39.4%</b> 1,117.9백만불
+ 닭고기, 유자, 배 - 인삼, 김치, 딸기, 파프리카	+ 면류,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 장류, 리큐르, 인스탄트면	+ 김, 참치, 명태, 연어, 대구 - 어묵, 굴, 미역, 전갱이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b>미국</b> 환율상승 및 K-Food 인기에 따른 김, 과자류, 라면 호조로 전체 증가세 643.1백만불(19.0% ↑)	+ 김(59.7%), 과자류(32.3%) 음료(46.9%), 라면(27.6%) - 버섯(△21.3%), 닭고기(△29.6%) 라이신(△54.2%),
 <b>중국</b> 봉쇄 장기화로 신선, 가공 감소세이나 명태, 연어 등 수산물 전체 증가세 견인 691.3백만불(23.3% ↑)	+ 명태(7,128.9%), 연어(312,748.4%), 라면(7.0%) - 과실류(△12.6%), 과자류(△8.3%)
 <b>신남방</b> (ASEAN + 인도)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소비심리 회복되면서 음료, 닭고기, 김 등 고른 증가세 887.8백만불(11.4% ↑)	+ 음료(19.0%), 닭고기(100.3%), 김(28.8%), 라면(16.1%) - 어란(△30.7%), 정어리(△87.4%)
 <b>일본</b> 소스류, 식초 등의 가정식 및 김 인기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 681.7백만불(6.3% ↑)	+ 김(35.4%), 연초류(17.9%) 식초(70.1%), 소스류(12.1%), - 참치(△10.4%), 주류(△5.2%) 파프리카(△10.7%), 김치(△28.5%)
 <b>EU + 영국</b> 봉쇄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음료, 김치, 장류 등 고른 증가세 292.5백만불(40.1% ↑)	+ 참치(66.2%), 음료(8.6%) 김치(14.1%), 장류(9.5%) - 라면(△7.5%), 버섯(△11.8%)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7호 2022. 5. 2(월)

##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4.30

### □ 인삼

- (중국 18.5,  $\Delta 35.5$ ) 인삼류 주수입항인 상하이 봉쇄 장기화 및 한국산 제품 수입검사조치 강화로 인하여 인삼류 수출 감소폭 확대
- (베트남 14.3, 46.4 $\uparrow$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층이 젊은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간편하게 소비가 가능한 제품(인삼차, 홍삼가공품) 위주로 수출 증가세
- (일본 11.5, 40.8 $\uparrow$ ) 엑기스 위주로 수출되었으나 먹기 편한 스틱제품 등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판매 확대

**74.0백만불( $\Delta 6.1\%$ )**

주요 수출국 : 중국(18.5백만불,  $\Delta 35.5\%$ ), 베트남(14.3, 46.4%), 일본(11.5, 40.8%), 미국(11.1, 7.6%), 대만(6.6,  $\Delta 7.7\%$ ), 홍콩(5.3,  $\Delta 23.6\%$ )

### □ 닭고기

- (베트남 23.0, 103.4 $\uparrow$ ) 베트남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제조공장, 학교 대면수업 재개 등 단체 급식 수요 증가 및 사회활동 증가로 닭고기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미국 1.6,  $\Delta 29.6$ ) 물류비 상승 및 선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원가 상승 등으로 발주 감소하면서 수출 감소

**28.8백만불(56.0% $\uparrow$ )**

주요 수출국 : 베트남(23.0, 103.4%), 미국(1.6,  $\Delta 29.6\%$ ), 홍콩(1.6,  $\Delta 2.2\%$ ), 일본(1.0,  $\Delta 42.4\%$ ), 캐나다(0.6, 127.7%)

### □ 음료

- (미국 37.8, 46.9 $\uparrow$ ) 미국 알로에 음료 등 건강음료 수요 증가
- (캄보디아 29.5, 15.0 $\uparrow$ ) 코로나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재개 및 전년 캄보디아 운송제한 조치에 따른 기저효과

**180.5백만불(12.6% $\uparrow$ )**

주요 수출국 : 미국(37.8, 46.9%), 중국(30.8,  $\Delta 2.8\%$ ), 캄보디아(29.5, 15.0%), 베트남(15.8, 26.9%), 인니(7.1, 20.8%), 일본(6.4, 9.8%)

### □ 굴

- (일본 11.3,  $\Delta 9.2$ ) 수입 어패류 검역절차의 강화 및 한국산 굴 가격상승 지속으로 수출량이 감소
- (미국 6.4, 21.9 $\uparrow$ ) 냉동 굴과 통조림 수출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굴튀김, 굴스낵, 굴 만두 등 기타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기타가공제품 미국 수출 작년 동월대비 95% 상승
- (대만 0.9,  $\Delta 28.0$ ) 원물 공급 부진 및 작업 인력이 감소하고 식품 미생물 위생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역 강화 등으로 수출감소

**23.3백만불( $\Delta 4.1\%$ )**

주요 수출국 : 일본(11.3,  $\Delta 9.2\%$ ), 미국(6.4, 21.9%), 홍콩(1.9, 31.9%), 태국(1.3, 45.7%), 대만(0.9,  $\Delta 28.0\%$ )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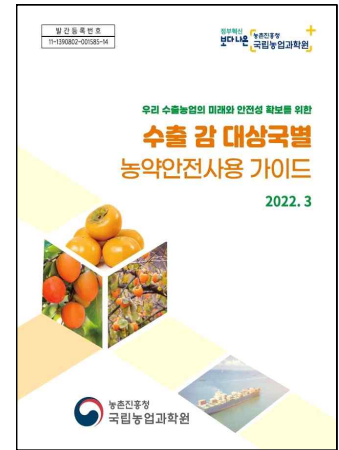
## 농진청 이슈



###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한국산 수출 감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감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86톤, 389만 2,000달러로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감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4개 나라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병해충 사용 가능 농약 목록을 소개한다. 또한, 각 농약의 최종 살포일, 살포 횟수, 희석배수, 나라별 농약 잔류허용 기준 관련 정보를 담아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수출업체, 농업인,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갯잎 수경재배' 표준 재배법 나온다

#### - 품질, 생산성 높이는 배양액과 양분 농도, 배지별 특성 밝혀 -

농촌진흥청은 잎들깨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수출 확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잎들깨는 한 해(2020년 기준) 재배면적이 약 1,100헥타르(ha)에 이르고, 연간 4만 톤 정도 생산되는 주요 소득 작목이다. 최근 홍콩과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토양재배가 대부분이어서 이어짓기(연작)에 의한 생리장해나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발생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잎들깨 수경재배에 필요한 영양액(배양액)과 양분 농도, 토양 역할을 하는 배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잎채소(엽채류) 범용액'이 부분적인 양분 결핍 등 생리장해가 나타나지 않아 농가에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농가마다 수질이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게 보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올해 연말 농업 기술길잡이 '잎들깨'와 '수경재배' 편에 추가로 실고,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갯잎 수경재배 시설하우스>



<수경재배 갯잎 수확>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 식물검역 이슈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위한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 추진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사과 및 배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위한 수출검역요건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양국이 국산 사과·배의 우즈베키스탄 수입 요건에 최종 합의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요건 발효를 최종 통보함에 따라 한국산 사과·배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였다. 검역본부는 현재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검역요령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 UN 5월 12일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매년 5월 12일이 「세계 식물건강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식물 건강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및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은 2020년을 「세계 식물건강의 해」로 지정하면서 식물 보호와 건강한 삶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을 추진해 왔고, 검역본부도 이에 찬성을 표명하며 적극 동참을 하여 올해 3월 29일 제76차 UN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식물건강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기념우표 발행 및 주간 행사를 추진하여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http://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